

마가복음 13 장은 흔히 ‘소묵시록’(little apocalypse)이라 불린다. 본문은 분명 전쟁과 전쟁 소문, 지진과 기근에 대해 언급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의 종말과 신천지를 그리는 묵시문학적 특징을 갖는지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어떤 비밀스런 숫자나 동물의 등장도, 세상의 지배체제에 대한 개요도 없고 꿈과 비전을 해석하는 천사도 등장하지 않는다(다니엘, 계시록 비교). 그럼에도 우리가 ‘종말론’이라는 말을 여전히 쓰는 이유는 소통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종말론을 성서적 의미에서 다시 이해할 기회를 갖고자 함이다. 서문에서 우리가 채택하는 방법론으로 역사적 접근, 문학적 이해, 신학적 해석을 제시했는데, 이에 따라 본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 유대전쟁과 성전 붕괴

마가복음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유대전쟁(66-73 C.E.)은 1세기 유대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당시 주류를 형성한 제사장, 사두개파, 열심당원(젤롯당), 에세네파 등 수 많은 유대 종파들은 전쟁 후 모두 자취를 감추고 오직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인들만 살아남았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서기 70년 전후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는데, 70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지도체제가 멸망한 해다. 예루살렘 성전붕괴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남긴 『유대 전쟁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은 리차드 호슬리가 요약한 유대전쟁과 성전파괴 과정이다.

팔레스타인에서 수십 년 동안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후, 기원후 66년 여름 예루살렘에서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나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지도적인 대체사장들과 그들의 대저택을 공격했다. 예루살렘 주민들과 기타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그 도시에서 패퇴하도록 만들고, 그 도시의 주요 요새를 방어하도록 남겨진 로마 수비대의 잔여병력을 살해했다. 즉 로마인들을 강제로 몰아냄으로써 팔레스타인은 일시적으로나마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67년 여름 로마가 재정복에 나서자 갈릴래아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단호하게 저항했다. 그 후 여러 곳에서 벌어진 농민운동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세력을 규합하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맞서기 안성맞춤인 요새였기 때문이다. 일단 그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삼게 되자, 그들은 아직 그 도시를 탈출하지 못한 헤로데 귀족들과 제사장 귀족들을 공격했다. 마침내 로마의 포위에 맞서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자, 지방 출신의 중요한 네 개 농민 집단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마침내 로마인들이 성벽을 돌파하여 그 수비자들을 학살하고 성전을 파괴했다(리차드 호슬리, 『예수와 제국』, 69-70).

마가복음 본문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기록들은 모두 유대전쟁을 묘사한 말이다. 또한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서 무력항쟁을 일으킨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으로 예수—더 정확히, 예수의 입을 통해 말하는 마가 공동체—는 열심당원 등 무장단체와는 달리 비폭력 저항을 선호했다(Ched Myers, *Binding the Strong Man*, 331-333, 336-338). 제자들이 공회와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됨은(13:9)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문학적 구성

무엇보다도 마가복음 13 장이 종말론에 대해 무엇인가 말하고 있다면, 그 문학적 배경이 예루살렘 성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갈릴리를 출발한 예수는 마가복음 11 장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도착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뿐이다. 도착 첫날 예수는 단지 성전을 둘러보고(11:11), 이튿날 다시 들어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고 성전

운영체제를 뒤엎는다(11:15-18). 그 후 예수는 성전에서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예루살렘 지도체제와 일련의 논쟁을 벌인다(11:27-12:37). 과부의 가산을 삼킨 서기관들과 성전체제를 비난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는 성전 밖으로 나온다(12:38-44). 그리고 마가복음 13 장은 이제 예수가 그 성전을 떠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예고한 것이다. 처음 무화과 나무 비유가 성전을 빗대어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11:12-14, 20-25) 마지막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성전시대의 끝을 예고한다(13:28-29). 이렇게 예수의 긴 담화(13:5-37)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일반적 성찰이라기 보다는, 제자들의 구체적인 질문에 기초한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13:4).

## 언제 일어나는가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문맥으로 보면, 성전이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상태를 말해야 한다. 특히 우리말 번역처럼 ‘이런 일’이라고 이해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런 일들’(ταῦτα, these things, 13:4)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 여러 일련의 사건을 종합해서 말하고 있다. 제자들의 시기를 묻는 질문에 예수는 이거다 하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종말이라고 말할 법한 상황, 곧 난무하는 전쟁의 소문과 예루살렘 성전붕괴는 끝—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다만 고난의 시작일 뿐이다(13:7-8). 그 때에 일어날 들을 종합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며, ‘멸망의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에 자리한다.

그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제자들을 표적과 기사로 세상을 동요시킬 것인데 깨어 있어 세속에 휩쓸리지 말도록 예수는 제자들을 권고한다(13:5-6, 21-22).

마가복음에서 표적(σημεῖον, sign)은 그리 관심을 끄는 주제가 아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의 요청을 예수는 이미 거절한 바 있다(8:11-13). 제자들 역시 표적을 구한다. 비록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를 시험할 목적으로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또 현재가 아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표적이지만, 그들의 요청에 예수는 여전히 부정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을 보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산다. 그것에 유혹되지 말라. 혹세무민(惑世誣民). 그들이 전하는 것은 성공신화이자 세상의 가치관이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런 일들’이 무엇을 말하든 초점은 곧장 제자들 삶의 현장으로 되돌아온다. 그들이 회당과 공회 그리고 권력자들 앞에서 고난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근본주의나 세대주의자들이 이해하듯 세상의 종말에 오는 대환난(tribulation)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회에 넘겨지고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고난 당하는 것은 이미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일을 예언할 때 쓴 말이다(8:31; 9:31; 10:33-34). 세례 요한도 같은 운명에 처했다(9:13). 그리스도인들 역시 예수가 간 길을 따른다. 제자는 예수의 삶의 연장선에서 있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공동체가 겪었을 유대전쟁은 그들이 앞으로 겪을 고난의 시작이자 그들이 살아내야 할 치열한 삶의 일부분인지도 모른다. 예수와 제자들의 길이 세상의 길(가치관)과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고난의 핵심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 장에 나오는 것으로 역사적으로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 세 에피파네스(175-163 BCE)가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할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돼지의 피를 성전에 뿌린 행위를 말한다(단 9:27; 11:31; 12:11).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말한 문구(13:14)는 독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 마가 공동체에게는 그들이 최근에 목격한 성전붕괴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다. 로마제국이 단지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할 뿐 아니라 아예 말살할 목적으로 불을 놓아 성전이 통째로 사라진 일이다. 그런데도 이 일이 아직 끝이 아니다(13:7).

## 무슨 징조가 있는가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면, 최소한 그 즈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는 있는가? 그 때 일어날 표징으로 두 가지를 말한다. 하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성서와 전통을 되새기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비유를 통한 가르침이다. 둘 다 세대와 세대를 읽는 눈을 요한다.

“그 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13:24-25). 먼저 마지막 때 일어날 천기의 변화는 예언자들도 말한 부분이다(사 13:10; 암 8:9; 율 2:10).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는 등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은 옛 사람들이 즐겨 쓴 표현으로, 천체는 각각 신들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신들의 멸망을 예고한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13:26). 묵시문학, 특히 다니엘서와 관련해 이 말만큼 많은 오해와 편견을 불러온 말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에 나오는 표현이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옳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3-14).

일단 기억할 것은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는 장면이다. 마치 TV 나 영화를 보듯 이 장면을 다니엘이 본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를 인자(예수)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하느님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우리들이 된다. 우리는 흔히 인자가 우리에게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다니엘처럼 단지 그 장면을 목격할 뿐이다. 인자가 하느님께로 가서 세상의 권세를 물려 받는다. 현 체제의 멸망과 함께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말이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보듯, 이것을 우리가 보고 증거한다. 물론 환상과 비전으로 꿈과 이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또 다른 징조는 무화과 나무 비유다(13:28-29).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온 것을 안다. 이것과 인자가 가까이 온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인자가 오는 것(coming)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再臨, second coming)이라기 보다는 다니엘서에서 인자가 하느님에게 와서 그로부터 권능을 물려받는 것, 곧 현 지배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것으로 본다. 천지개벽이자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와 여름은? 암 8:3 에 보면, 야훼 하느님이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 주며 이스라엘의 끝이 가까이 왔고 용서치 않겠다고 말한다. 히브리어로 여름은 카이쯔(קַיִץ)고 끝은 케이쯔(קֵץ)다.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비슷한 발음과 다른 의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는 문학적 창조성이 엿보인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시대를 읽는 눈을 통해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 그 끝이 보인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11:32-33).

## 깨어있음과 종말론적 삶

너희가 보느냐(13:2). 여기서 ‘보다’는 일견 눈에 들어오는 것을 물리적으로 인식함을 말한다. 그런데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할 때(4:12), 이는 보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을 전제하고 있다. 알아차림이고, 깨달음이다. 마가복음 13 장에는 ‘보다’(βλέπω)는 단어가 다섯 번 쓰였는데 처음은 제자들이 성전을 그냥 ‘보고 있음’을 말하지만(13:2), 나머지 네 번은 ‘주의하라’(watch)는 뜻으로

단순히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에 걸맞은 결단과 행동을 요구한다(13:5, 9, 23, 33). 이와 관련해 ‘깨어 있으라’(γρηγορέω, watch)는 말 역시 마음의 눈과 연결되어 있다(13:34, 35, 37).

그러면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 반대 개념은 ‘자다’는 말이다(13:26; 14:37). 우리는 꿈속에서도 무엇인가를 보고, 일상에서도 많은 것을 본다. 다만 그 보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 머물지 못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다’는 말은 의식이 없거나, 깨어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불자들은 ‘깨어 있음’을 특히 강조한다. 불교는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이 오온(五蘊)—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 사물, 느낌, 생각, 행위, 의식—이라 불리는 다섯 가지 마음 작용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모든 고통이 이런 생각과 감정에 집착함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는 수행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정념(正念)이다. 문자적으로는 얼핏 ‘바르게 생각 하기’라고 짐작하기 쉬운데, 이것은 정사(正思) 혹은 정사유(正思惟)에 해당하고, 정념은 보다 일차적이고 근원적인 단계인 바르게 알아차림, 깨어 있음으로 이해된다.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림이다. 이렇게 깨어 있으려면, 흔들리는 자신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본래의 참 나(眞我) 자리에서 나(에고, Ego)를 바라보는 자세다. 혹은 그 안에서 자신과 세상을 살핀다. 마가복음의 표현으로 하느님(하늘) 자리에 해당하고, 성령이 내재한 곳이다. 나와 하느님과 다이얼을 맞추는 일이 깨어 있음이다. 성령이 그 시에 할 말을 준다(13:11). 이것은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기 보다는 항상 깨어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다.

그 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13:32-33). 역설적으로 시간을 초월한다는 말이다. 시와 때에 매이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사는 것에 초점을 둔다. 종말론적 삶이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요, 매일 매 순간을 이 생의 마지막 삶처럼 사는 것을 뜻한다. 지배체제의 편에서 승리를 독식할 것인가 혹은 예수의 뜻을 따라 상생의 삶을 위해 헌신할 것인지 묻는다. 종말론적 신앙은 어느 체제나 이데올로기 혹은 특정그룹의 소유물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히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가 아닌 언제, 어디서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마가복음 13 장은 성전붕괴가 단지 로마제국의 희생양이 아니라, 하느님의 심판의 결과로 보았다. 성전이기에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거짓 선지자의 신학이고 거짓 그리스도(정치가)의 가치관이다. 예수가 성전에서 목격한 일들(11-12 장)은 성전체제의 패악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오늘날에도 예수의 신학과 기독교에 들어온 거짓되고 더러운 신학은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더러운 영의 산물이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예루살렘 성전붕괴의 종말론적 이해다.

#### 생각할 거리

1. 우리 문화와 종교에는 더 이상 ‘성전’은 없다. 그럼 성전붕괴 선포에서 “성전”이 뜻하는 바는?
2.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 말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록] 성서의 종말론 개념: 어제와 오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근본주의/세대주의	자유주의	신학 다시 하기
해석의 열쇠	· 성서와 나 · 역사의식 배제	· 성서와 그들 · 철저한 역사의식	· 성서와 우리들 · 역사의식 and Beyond
예언 성취여부	· Not Yet	· Completed	· Completed and yet to be realized
이 일들, 표적	· 대환란(tribulation) · 마지막 때, Parousia	· 유대 전쟁 (66-73 C.E.)	· 지배체제와 다투는 삶의 현장 · 예) 지식층, 젊은 이들의 교회 이탈
그 날(들), 그 때	· 이 세상의 종말	· 예수의 세대	· 우리 세대—역사상 예수 안에서 identity 를 찾는 모든 이들
성전붕괴, 도망	· 소중파적 도피생활	· 무의미한 희생을 피하라	· 지배이데올로기와 운명을 같이하지 말라
멸망의 가증한 것 (=>단 9:27; 11:31; 12:11)	· 적그리스도 · 666 (계 13:18)	· 로마 군대, Antiochus IV (d. 164 BCE) · (제 1 마카비 1:54)	· 더러운 영 · 예수의 신학/기독교에 들어온 가짜/더러운 신학 (재물, 권력위주)
...이 가까이 온 줄을 (29 절)	· 인자가 옴=>재림 · 예언이 아직 성취 안됨=>고로, 기다림	· 예루살렘 성전 붕괴 · 예언의 성취 · 고로, 더 이상 상관없음	· 시대를(시대의 표적을) 읽는 눈=> 신학 하기의 출발점 ·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여전히 ...
그 날과 그 시	· 예수 강림(Parousia) · 마 24:36-39=>24:3	· The day of YHWH=> Judgment day · On that day=> 종말론적	· Undefined=> not to be defined · 늘 깨어 결단의 삶=> 날과 시— 기회주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님 (maybe thieves'=> 4 watches) · 현재의 삶에 충실
깨어 있으라	· 저 세상 가는 막차를 놓치지 않도록	· Preparedness (for what?) · 재림의 임박	· 주어진 삶/시간을 낭비함에 대한 경고